

막 올린 16대 총장 선출 ... 후보 7인의 포부는?

- 변화 추구하는 움직임에 부응
- 재정, 교육, 연구, 자율성 문제 해결
- 존경받는 경희대학교 만들기
- 교육의 플래그십 역할 제공

김도연 예비 후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교수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
- 등록금 인상 합리성 확보
- 미래융합인재대학 설립
- 구성원 간 화합 도모

오환섭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미래지향적 대학 실현
- 전 학생 대상 AI 교육 제공
- 경희백년전략위원회 설치
-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대학

장성구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27년 경험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
- 인사관리제도 개선
- 연구비, 인센티브 제도 개선
- 구성원 복지 개선 및 소통 채널 구축

정완용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
- 양 캠퍼스 R&D밸리 건설
- 서울캠퍼스 병설 학교 외부 이전
- R&D밸리를 통한 재정 확보

정진영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위기 맞은 대학 개선
- 지구적 과제 수행
- 인적, 제도적, 연구설비 적시 제공
- 다양한 수입원 창출과 지출 효율화

한군태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러운 대학
-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
- 기부금 300억 원으로 증액
- 취업률 75% 달성

황주호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지난달 2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은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 7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비 후보자는 외부 인사 1명, 내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일부터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대학주보 1653호는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 특집호로 발행되며 이들 7명의 정책 인터뷰를 담았다. 개교 70년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민주적 총장선출에서 과연 누가 우리학교를 이끌어 갈 총장의 자리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 4, 5, 6, 7, 8, 9, 10면) ※ 위 후보자 순서, 가나다순.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총장 후보 3인, 직선제로 추천, 직원-학생 투표반영비, 50:50

10. 30 구성원 대표 최종 합의로 시행세칙 마련

구성원 대표 “김도연 예비 후보 절차 위반”

대학 “행정상 착오, 김도연 후보 아무 문제 없어”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달 30일 대학과 구성원 단체 대표자가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대학-구성원 대표 합의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해 투표 방식과 직원·학생 투표반영 비율, 시행세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구성원 대표들은 절차상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함께 내놨다.

대학과 일부 구성원은 10월 2일 발표된 ‘제16대 총장후보추천 지침’(지침) 수정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일부 구성원은 발표된 지침내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과 시행세칙 마련 선행을 요구했고 대학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된 지침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를 통해 지침 내에서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구성원이 “시행세칙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총추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실제로 10월 10일 예정됐던 총추위 1차 회의는 직원 및 교수 위원의 불참으로 성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0월 16일 총추위 회의에 직원 위원과 일부 교수 위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성원됐다. 비로소 정식으로 1차 총추위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이후 총추위는 이명웅 법인 위원을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연구 실적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총장후보토론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일부 해결했다. 이어 10월 23일 개최된 2차 총추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총장후보토론회 진행 방식과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선거운동과 구성원 투표방식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총추위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수 위원이 불참하고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

를 내면서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2차 총추위 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교수회의는 대학에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구성원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한 관리 권한이 총추위에 있음을 고려해 구성원 단체 대표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오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10월 30일 구성원 대표자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구성원 단체 대표들은 투표 방식과 직원·학생 투표반영 비율, 시행세칙 준수 등에 합의했다. 문제가 되던 시행세칙이 마련되면서 줄곧 불안했던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었다.

이날 채택한 합의문은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하는 전 구성원의 직선제를 전제한다. 또 2안 의결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 직원·학생 간 투표반영 비율은 50:50로, 직원 내부 투표반영률은 제1노조가 60%를, 제2노조와 의료원 노조가 각각 20%씩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3면으로 이어짐



동문 속한 유명밴드 잔나비, 발전기금 쾌척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서울】우리학교 동문 최정훈(경영학 2011, 사진 좌측에서 3번째) 씨가 속한 유명 밴드 잔나비가 발전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다시 찾았다. 지난날 30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 잔나비 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씨가 참석했다. 잔나비의 우리학교 방문은 올해 봄 대동제, 가을 대동제에 이어 세 번째다. 잔나비는 축제 당시 받았던 열띤 환영에 감사의 의미로 출연료 중 8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손혁상 대외협력부 총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용도로 쓰일 것”이라며 “학생이 준 기금이 학생을 위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축제를 마무리하고 폐포니 뮤직 최정준 실장님에게 출연료 중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는 연

락이 왔다”며 “이에 학교 측과 협의했고 대외협력처를 통해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잔나비가 지난 봄 우리학교 대동제에 섭외된 것은 동문이라는 연결고리 덕분이었다. 최정훈 씨는 지난 2011년 우리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동문이다. 총학 김 회장은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 축제에서 최정훈 씨가 본인은 옆 학교를 나왔는데 축제에 불려주지 않았다는 농담을 던졌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축제에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모교라서 그런지 경희대는 항상 반갑다”며 “타 대학 축제랑은 사뭇 다르게 친근감도 있고 홈그라운드에서 공연하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더해 최 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힘들 때 불려주셔서 오히려 힘을 받아갔다”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일단 공연을 잘하기로 했고, 공연을 하고나서도 아쉬움이 풀리지 않아 수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선

사설

총장 선출 방해하는 소통 부재

구성원의 염원을 담은 총장 선출이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곱 명의 총장 예비 후보자가 공개되며 막연했던 총장 선출은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수많은 갈등과 협의를 거쳐 현재 단계에 도달한 만큼 이는 작지 않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도 달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단 한 번도 매끄러운 적이 없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칠거칠한 사포처럼 만든 것은 ‘소통의 부재’였다.

구성원의 대표자 총장을 뽑는 과정인 만큼 조직 내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총장 선출 관련 협의 과정은 시작부터 잡음의 연속이었다.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 각 집단의 논리는 소통의 부재를 낳았고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구성원 간 논의를 좁히지 못해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시간만 해도 결코 적지 않았다. 앞서 보내버린 시간 탓에 현재 총장 선출 절차는 물리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소통의 부재가 매끄러운 논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단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소통의 부재는 끊임없이 지적됐고 앞으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소통 부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나비효과를 줄이는 게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총장 예비 후보자 등록 단계에 이른 현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 결과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총추위 회의록은 요약문 형태로 홈페이지에 뒤늦게 업로드 되는 데 그친다. 대학주보와 불규칙한 총추위

행정지원단 이메일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소통 채널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현 상황만 봐선 대학이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인상을 주긴 어려웠다.

외부 추천으로 등록된 김도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16일 성원된 제 1차 총추위 회의에서 6명의 후보자가 최종 예비 후보자로 추려졌다. 하지만 제 2차 총추위에서 한 명의 외부 후보자를 추가한 상황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구성원은 결의문을 통해 의혹에 대한 대학 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총추위에서 ‘행정상의 착오’란 의견을 밝힐 뿐이었다. 이러한 답변이 구성원을 충분히 설득했지는 의문이다.

소통의 부재는 더 큰 문제를 부를지도 모른다.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김도연 예비 후보자 등록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온 협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다. 소통의 부재는 구성원의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총장만 뽑힌다고 그 이후 더 나은 경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총장 선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일까지 고민하는 안목이 시급하다. 대학과 구성원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때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사소한 잡음도 줄이려는 노력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다.

만평 - 총장후보 추천과정 소통 부재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레기화)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최명길, 김상헌 되기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지난 9월 한겨레 발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에 위원장이 구설에 올랐다. 기사는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위 핵심 과제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인종, 장애 등의 일체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인권위 내부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미루는 이유였다. 한겨레 기사는 인권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이 우려되니 다음 총선까지는 차별금지법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최 위원장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의견에 큰 그림을 못 보는 도덕 결벽증의 발로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지금에 와 돌아켜 보면 논란은 수면에 잔잔한 파문만을 남기고 다시 흘러가 버렸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는 촛불과 태극기와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 100만이네 200만이네 세 다툼을 벌였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비겁함을 규탄하는 분노도, 큰 그림을 보자는 신중함도 그런 위세는 갖지 못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세력이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그들에게 공격하기 좋은 구실이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현재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는 국가기관의 수장이니 정무적 판단 또한 필요하다고 여겼으리라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에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일, 세간에 속된 말로 ‘인권위가 대통령을 들이받았다’는 관전평이 돌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원래 그런 일 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씁쓸한 맛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역시도 사실이다.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자. 10만이 넘는 청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에 갇혀 버린다. 성 밖은 청군에, 성 안은 추위와 굶주림에 에워싸였다. 근왕병의 지원은 요원하기만 했다. 임금은 화의론의 손을 들고 최명길은 ‘조선의 왕이 청의

황제에게 신하를 자칭하며 항복한다’는 내용의 국서를 지어 올렸다.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이 통곡하며 문서를 찢어발기자 최명길은 종잇조각을 그러모으며 “글을 찢는 자도 없어서는 안 되고 글을 주워 맞추는 자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최명길은 자신과 김상헌이 대립하지만 국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심하진 않았다.

최명길과 김상헌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주했던 현실과는 달리 현대 민주정치의 유쾌한 점은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이민족 황제의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목이 달아날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안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최명길이 돼 볼 수도 있고, 김상헌이 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내 보조에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옆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는다면 더 좋을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의 결정을 내렸다. 비록 영향력은 비할 바 못되지만 오늘은 내 결정을 내려보려고 한다. 나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왕관을 쓰려는 자’에게

취재수첩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기는 경험이었다.

먼저 모든 갈등의 실마리가 소통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내가 새로운 총장 선출에 가졌던 의심은 그 과정을 마무리 보았을 때 꽤나 합리적인 것이었다. 나는 회의는 물론이고 이는 의 자체가, 아니 민주적 총장 선출 기회가 엮어질 뻔 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뾰족한 단어들로 무장한 성명서 공방전은 예삿일이었고 서로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심심찮았다. 그

“
당장이라도 논의자체를
어그러트릴것 같았던 갈등도
늘 그 실마리는 어렵사리
마련된 ‘소통의 자리’ 였다

러한 광경을 보고 있자면 갈등이 절대 해결될 수 없을 듯 보였고 당장이라도 논의 자체가 어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갈등은 늘 다소 허무할 만큼 쉽게 해소되곤 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간담회, 회의, 면담 등 다양한 이름을 한 ‘소통의 자리’가 그 실마리였다.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다툼

연인이 으레 그러하듯 일단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 어려운 문제도 금방 타협하는 식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눈빛이나 목소리,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들의 작용이 그 사실을 일깨운 탓이었을 것이다. 딱 그렇게 소통은 늘 갈등을 싱겁게 했다.

다음은 구성원의 대표라면 마땅히, 그리고 겸허히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취재 중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과 논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였다. 마감에 쫓기는 입장에서 야속하게 느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돌아켜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 달리 대표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보다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앉아야 마땅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지배자와 대표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총장이라는 자리가 꼭 그런 자리가 아닌가. 다름 아닌 경희의 대표를 우리는 총장이라 부르니 말이다. 또 그 자리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마주하는 곳일 것이기에 전하고 싶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응당 귀를 열리라”라고,

구분	김도연	오환섭	장성구	정완용	정진영	한균태	황주호
출마 이유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경희대학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학생이 주체가 되고 행정·총장은 책무를 다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수·행정보직자로서의 전문성 살려 살려 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맞은 대학, 경험을 바탕으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정확충	동문·기업·정부와의 협력 및 연구를 이용한 창업으로 가치 재창출.	정부 지원 과제,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기술 이전, 창업, 발전기금.	전문 업체 활용, 전담 CFO 임명, 기부자 예우 개선.	국책사업·산학협력·시설활용 등 대내외적 전략활용.	양 캠퍼스에 대규모 R&D밸리를 건설해 대규모의 재정 확충.	참여 지원 및 연구기금을 통한 수입원의 다양화, 지출 효율화.	총장 주도 기금모금체제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미래수요 프로젝트 준비.
교육혁신	구성원과 함께 대학 교육에 혁명적 변화를 고민할 것.	신지식과 전통학문의 융합체계, 사회진출 목표 측정해 인증제도 운영.	ICT 활용, AI 접목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인재 양성.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추구, 교수 연구 역량 강화.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 시대에 걸맞은 강의 증설.	교양 교육 혁신 추진, 융합교육 신규과목 개설, 산학연계 확대.	융합전공·현장실습 확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실현.
유학생 지원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중요하지만 대학 형편 따른 방안 필요.	유학생 학습 관리지원 행정기구 마련, 입시전형 재정립, 우수 외국인 유치.	교육목표 설정, 여건개선과 생활안정 및 지원 업무 전담 부서 운영.	내국인 학생-외국인 학생-교수가 참여하는 3자 멘토링 제도’ 시행.	국제학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양 캠퍼스 국제학사 건립.	학업 지원 및 전담인력 배정, 예산 증액, 센터 설립.	학문별 기준 정비, 국제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연구역량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학, 한의학 분야 우선 육성.	글로벌 공동연구, 장기적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석좌 교수 제도를 확대.	연구과제 수탁 지원과 융합연구 발굴, 보직자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한 연구 성과평가, 인사관리 제도 개선.	산학협력관 건설, 연구센터 6곳 집중 육성, 석학육성프로그램도입.	국제교류 구축, 연구부총장직 신설, 실험 공간 확충.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 학문 분야별 우수 선임 및 거장 교수 영입.
학문 후속세대 양성	대학과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가 근본적 방안.	창업경진대회, 학부 장학 혜택으로 대학원 사전 입학제도 실시.	학부과정에서 교수, 대학원생의 연구에 참여.	대학원 진학 동기 부여, 대학원 진학 이후에 대한 비전 제시.	장학제도 도입, 연구프로젝트, 실험에 학부생의 참여 활성화.	석·박사 연계과정 확대, 장학금과 연구수당 확충.	장학지원을 통한 동문 간 학문세대 연결, 연구비 지원.
소통	학생, 교직원, 동문과의 소통을 위해 ‘개방’ 지향.	거버넌스의 슬림화, 회의체 개선, 업무지원팀 신설, 교류의 장 기획.	총장 직속 제안 처리기구 설치, 구성원 참여 확대.	구성원과의 창구 마련해 학교 발전 방향,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본권화, 구성원과의 상시 소통 약속.	소통 채널 상시 가동, 프로그램 만들어 총장실을 ‘열린공간’으로.	절차라는 필요조건에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을 더할 것.
권력형 인권침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 관용은 없을 것.	다양한 권력형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전문가 및 조직 영입.	교직원, 학생 대상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학칙에 인권침해 방지 규정 제정, 인권세미나 개최 지원.	옴부즈 제도 전문적 운영, 경희인권센터 도입 검토.	교육 프로그램 강화, 감사와 징계 엄격히 적용.	예방교육 영상 후기 공모전, 발표회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예비 후보 7명 정책 인터뷰… ‘재정·소통’ 최우선 과제로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달 2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 홈페이지에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 7인이 공개됐다. 우리신문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예비 후보자 7명의 정책 인터뷰를 진행해 답변을 들었다. 그 결과, 모든 총장 예비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에 재정 확충과 소통을 제시했다.

최근 우리학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문제에 학내 구성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201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로 높은 편이다. 재정 확충을 위해 7명의 후보자는 키워드로 기부금 확충과 정부 주도 사업 수주를 언급했다. 또한 모든 예비 후보자가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

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모든 예비 후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연구 역량 강화, 학문 후속세대 양성 실패 등 현재 학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에도 대응책을 내놴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 생간의 연결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공통 키워드 또한 제시했다.

답변 내용은 이번 신문 4면에서 10면까지 대학주보 선거 보도 준칙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됐으며 편집 기준도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됐다. 또한 후보자에게 부여된 기호가 없는 관계로 총장후보추천 행정지원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나다’ 성명 순서로 배치됐다.

한편 지난 2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은 예비 후보자의 정책, 출마의 변, 후보자 소개가 담긴 이메일을 구성원에게 발송했다.

<예비 후보자 7인이 답변한 질문지 전문>

[대질문]

-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로 나오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후보자의 최우선 정책 공약을 소개해주십시오.

[경영]

- 최근 많은 대학이 각각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의 불안정은 안정적인 대학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에게서는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과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현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존재합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우리학교 교육설문조사단은 ‘경희

대 주력 과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의 주된 인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추구하는 교육 혁신의 핵심 주제와 실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학교 유학생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지원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

- 우리학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 전과는 다른 본인만이 가진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우리학교 학사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에 전념하고 자율적 연구 수행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소통]

-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대학가에서 여러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교수에 의한 ‘갑질’ 혹은 성폭력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타]

- 현재 교육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LINC+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1면에서 이어짐

순서는 제1후보, 제2후보, 제3후보로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법인에 추천될 때에는 삭제된다. 제1후보는 교수 측 최다 득표자로 결정된다. 제2후보는 직원·학생 측 최다득표자로 결정된다. 단, 제1후보와 같은 경우 직원·학생 측 차순위 다득표자로 제2후보가 결정된다. 제3후보는 교수 측 차순위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직원·학생 측에서 결정된 제2후보와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차순위 다득표자로 결정된다.

또한 시행세칙에는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의 범위부터 총추위 구성과 역할,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총추위 이명웅 위원장에 의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선관위 구성과 같은 일부 급박한 시행세칙은 같은 날 열린 3차 총추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상기 내용은 총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합의문에 따라 오는 4일 열린 4차 총추위 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는 교수 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30일 구성원 대표들은 합의문과 함께 ‘절차상 공정성을 현격히

위반한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해당 결의사항에는 강제식 교수를 비롯한 교수회의 의장단과 송상호 교수 위원, 제1노조 한상 위원장, 제2노조 장백기 위원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 회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전완주 회장이 서명했다. 구성원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미 10월 16일 있었던 1차 총추위 회의에서 6인의 후보자를 최종 예비후보로 결정했었다”며 “때문에 10월 23일 열린 2차 총추위 회의에서 10월 18일 접수한 1인을 추가해 총 7인으로 수정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현격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외부 추천인은 반드시 3인 이상의 사회자 명인사의 추천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후보자를 접수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 행정지원단(지원단)은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일 뿐”이라며 “김 예비 후보자는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예비 후보자가 처음 추천 접수된 시점은 10월 9일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였던 총추위 추천에 의한 후보자 물색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원단이 행정상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은 이후 총장 예비 후보자 참여 의향을 묻는 과정이다. 1차로 참여 의향을 묻는 과정은 별다른 문서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때 6명의 추천 후보자 중 4명은 지원단이, 김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은 법인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의향 타진이 누락됐다는 것이 지원단 측 주장이다.

이에 지원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1차 총추위 회의에서 이 임시위원장이 ‘6명의 공모자가 지원했고 6명의 추천 후보자는 고사중임으로 6명으로 압축됐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최종 예비 후보자를 확정 의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서면 확인 과정에서 김 예비 후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차 의향타진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 2차 총추위 회의에서 김 예비 후보자의 ‘총장 예비 후보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발표한 결의문은 10월 30일 구성원 대표자 논의에서 채택한 합의문과 함께 총추위에 전달, 접수된 상태로 이어질 4차 총추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큰 변화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해 개방 지향할 것”

김도연 예비 후보자

정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지난달 경희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 위원회로부터 총장 선임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 대학은 학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을 선임하기에 이러한 요청을 개인적으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수락을 주저했다. 하지만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예비 후보자로의 등록을 결정했다. 개방적인 조직만이 발전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결과에 상관없이 경희대학교가 지향하는 ‘개방’을 성원한다.

Q2. 최우선 정책은.

아무래도 경희대학교가 처음인 만큼 현재 대학의 구체적 재정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재정, 교육, 연구, 행정, 자율성 문제는 큰 차이점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존경받는 경희대학교’다. 경희대학교는 우리 사회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에서 플래그쉽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교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받는 경희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사립대학은 예외 없이 재정 위기에 봉착해왔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존재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은 20여 년 전 재정 파산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10년에 걸쳐 극복한 후 ‘와세다 재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물론 재정 위기 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총장이다. 대학 발전기금 확충은 총장이자면 누구나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대학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동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지식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로 창출한 지식을 이용한 창업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이를 다시 교육과 연구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학력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졸업(공학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 대학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공과대학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포스텍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지식으로 창출한 가치를 교육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수립
- 글로벌 경쟁력인 유학생, 대학 형편 파악 후 지원 방안 찾아야
- 의학, 한의학 분야 중점 육성 세밀히 검토할 것
- 개방적인 모습으로 소통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는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소통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개개인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당연한 일이다.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소통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에 ‘개방’을 지향한다. 그간 타 대학에서도 구성원과의 소통 문제는 없었다. 학생과 교직원, 동문과의 소통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힘을 지닌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학의 교수직은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좋지 않은 일에는 관용이 없어야 한다. 경희대학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문화세계의 창조’ 또한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 이뤄진다고 믿는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대형 연구과제 수탁은 대학을 활발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일이다. 교수 개인이나 그룹이 이런 과제를 수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를 기획하는 일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별도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Q12. 타 후보와는 다르게 유일한 외부 인사로 추천되어 예비 후보자에 추천됐다. 학내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는 구성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외부에서 왔으니 경희대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대학이란 조직은 그 이상의 자유로움과 활기가 있는 곳이라 확신한다. 이전에 있었던 울산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일을 진행했으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함께하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서양 속담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만일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만일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를 인용하며 존경받는 경희대학교를 위해 모두를 아우르며 일하겠다.

“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를 아우르며 일한다면 외부에서 왔다는 의견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경희대를 위해 일하겠다.

”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대형 연구과제 수탁에 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 이에 더해 R&D를 넘어서는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정규직 전환 문제는 비단 경희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다만 결점과 흠을 고치려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학생 모두에게 각자의 밝은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지금의 대학생이 살아갈 미래의 구체적 모습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로서 뚜렷한 것은 인간 수명 120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70년에 걸쳐 사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교육 여건 개선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작은 문제보다는 대학 교육에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비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대학 사회에서의 혁명은 불가능하겠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교육이기에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혁신하는데 주력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외국인 유학생은 소중한 존재이며 최대한 편안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대학의 여러 형편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지원 방안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한다. 우선 교수가 맡고 있는 강의에 외국인 유학생이 수강을 한 뒤 요청이 있을 경우 영어를 사용해 수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는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연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학은 빛나지 않는 보석이다. 그냥 평범한 돌맹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우선 몇몇 분야만이라도 연구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Focused Research University’다.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앞선 연구 분야가 필요하다. 몇 분야가 앞선다면 또 다른 분야의 견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학, 한의학 분야를 위시한 중점 육성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대학 자체의 연구경쟁력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학사 졸업생은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한다. 그러기에 대학원생이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과

“교수와 학생은 주체로, 총장은 책무를 다하는 대학 만들 것”

오환섭 예비 후보자

정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대학에서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결정권자는 주인이 되고 구성원은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 전락한다. 이런 구조는 종이 주인의 눈치만 보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행정력은 힘 있는 결정권자를 향하게 되고 결정권자가 행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교수와 학생이 주체가 되고 행정은 주체의 눈치를 보는 모습, 그리고 총장은 머슴의 상머슴의 자세가 자연스러운 대학, 교수와 학생의 기가 살아있는 대학, 자긍심 있는 대학으로 우리학교를 바꾸고자 예비 후보자로 나오게 됐다. 지난 40년간 연구산학협력처장, 교수회의 의장, 고등교육인정심의위원 및 공학 분야 위원장, 지식 재산교육 연구 학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평가와 교육 인증 등 누구보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험이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권력 중심을 향해 있는 행정을 교수와 학생을 위한 교육과 연구, 대학의 품격을 향상하도록 돌려놓는 일이다. 학생 눈치 보느라 등록금 동결, 노조 눈치 보느라 개선되지 못한 직원 인사제도, 교수 눈치 보느라 미흡해진 승진 재임용제도 개선, 교내의 동창 눈치 보느라 평가 대응 중심의 대학 운영 등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는 재정 적자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교육 환경 개선은 불가능해졌고 직원은 업무에 무기력해졌다. 대학원 교육 역량은 상실됐고 과제 수행능력은 저하됐으며 입시경쟁력도 낮아졌다. 교수의 연구 의욕과 역량도 저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그동안 눈치 보며 하지 못한 중요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교육 공간과 시설 확보에 재투자 할 것이다. 교육의 질 인증제를 학습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미래융합인재대학(가칭)’을 설립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해 성숙한 대학 문화를 창출하겠다. 대학 교육에 경쟁력이 있을 때 우수한 입학생이 학교를 찾게 된다. 향후 대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첫째, 교육을 위한 기본적 재정으로 등록금과 정부 지원 및 정책 과제를 재



학력

경희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공학사), 경희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교수회의 초대 의장, 경희대 연구처장,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양과 질을 동시에 점검하고 학문 분야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와 성과를 창출할 때이다.

”

원으로 해 기본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향후 대학 보유 지식 재산을 활용한 기술 이전, 창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정 확충을 도모하겠다. 셋째, 기타 발전기금으로 재정 자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장이 직접 선두에 설 것이고 발로 뛴 것이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보다는 무슨 일을 어떤 자세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비록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이 따라 직장은 변할 수 있지만 직업을 100세 시대의 직장으로 선택하는 시

대다. 종신할 수 있는 직장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대학은 사회로 진출하는 초년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전통적 학문 기반의 학과 교육과정에서 신지식과 융합하는 전공으로 변화해야 한다. 신지식과의 융합은 복수전공 혹은 신지식이 압축된 소수 과목의 트랙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교육과정을 점차 신지식과 전통학문의 융합체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공 분야별로 사회 진출이 가능한 목표와 학습 성과를 측정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먼저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2018년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총 4,626명의 외국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유학생은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학습 관리와 학습의 질을 지원할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입시전형 원칙을 재정립하고 우수 외국인대학원생 유치에 주력하겠다. 물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 교육 여건 개선도 고민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란 양적인 연구 실적

을 질적으로 변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능한 학자와 교류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때 연구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 거점을 찾아오는 연구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한 역량 제고, 정년 후에도 연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인식, 장기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석좌 교수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과 관련해 연구자로서 기초 능력을 습득할 기회가 적고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소비가 많으며 처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학부 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원의 위상이 현재 대학원의 교육과 맞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학부 학생을 불러들일 교육 환경 구축과 교육력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교수, 학생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연구 뿐 아니라 산학 과제를 활성화하고 끊임없이 연구 계획서 작성과 연구 방법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일상화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제품 개발 및 창업 관련 경진대회를 실시해 교수, 학생 간 가교를 마련하고 대학원 진학의 상담 기회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전공별 졸업논문 작성 선택을 활성화 해 학부 때부터 논문 지도를 받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은 장학 혜택을 통해 대학원 사

전 입학 제도를 실시하겠다. 학, 석사 연계과정도 활성화시키겠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버넌스의 슬림화, 회의체 개선으로 의사 결정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또한 업무지원팀을 신설해 단위 부서별 어려운 일이나 기획에 필요한 일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 및 문화 행사도 기획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다양한 권력형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 및 전문 조직 구성을 시행하겠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정부정책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교육을 교육과정에 착근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LINC+ 사업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 사업은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행정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LINC+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첫째로 학생 창업과 교수 창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인프라, 창업 지원제도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을 정비하겠다. 창업 교육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수차례의 직업적 위기, 노년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 역량과 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내재화 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 및 융합 교육 확대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Q12. 연구처장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평가에서의 교수 연구 부문 점수의 상승과 교내 연구 지원 및 제도 개발을 위한 방침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에 있어서는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 연구의 양과 질을 이분법으로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질이란 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창출하면서 질이 강화될 연구에 대폭 투자하겠다. 또한 고등 교육기관으로 인류에 기여할 의미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노벨상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겠다. 대외 평가 지표는 아직 양적인 점검으로만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뛰어 넘어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양과 질을 동시에 점검하고 학문 분야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와 성과를 창출할 때이다.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4차 산업혁명 발 맞추는 실천적·미래지향적 대학 만들 것”

장성구 예비 후보자

정리: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우리학교는 1949년 2월 15일 미원 조영식 박사가 설립해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게 됐다. 현재 우리학교는 규모 면에서 22개 단과대학, 3개 학부, 86개 학과와 14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재학생 34,000여 명과 연간 통합 예산 1조 3,000억 원의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 전임 총장들을 비롯한 경희인들이 노력한 결과다. 이번에 실시하는 총장 선출의 기회와 문화가 대학 발전의 큰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제 경희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철학을 우리학교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학교 발전사는 분명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날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인재상의 변화를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Homo Cooperatio(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류)’로서의 삶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살아갈 앞날의 삶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지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을 만들겠다. 경희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존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한국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서 감성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상의 마음으로 경희를 위한 모든 지혜를 구하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미래 대학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과 언어학습을 실시하겠다. 실용적 지식 교육을 통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다. 또 ‘경희백년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경희의 미래를 열겠다. 신뢰와 신의, 화합을 기본으로 대학을 운영할 것이다. 보직자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기부금 모금의 확대를 추진하겠다.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전문 업체를 활용하고 기부금 전담 CFO를 임명하겠다. ‘존엄성 있는 임종 프로그램’과 같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기업 단위 기부금 확보, 기부자 예우 개선, 기부금 운영체제 개선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 법인, 대학, 의료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법인의 KMC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겠다. 셋째, 산하 의료기관의 혁신적 경영개선도 펼쳐가겠다. 학교 기업의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확보 활동을 지원, 외국인



학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인제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주요경력

서울 의학계열 거버넌스추진위원회 위원, 경희의료원 종합기획조정실장, 경희대 병원장, (사)대한의학회 회장,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 전담 CFO 임명 등 기부금 모금 확대

• 모든 교육과정에 인공지능과 AI 접목

• 연구과제 수탁 지원과 학과 간 융합연구 발굴

• 총장 직속 제안 처리 기구 설치, 구성원 참여 확대

복하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등, 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학의 모든 학과, 모든 교육과정에 AI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인문학 발전 역시 AI 기반 학습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복수학위제를 확대 실시하고 직업 마인드 정립에 치중하는 교육인 ‘Convenience Universit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 젊은 세대의 사고에 맞는 직업관을 가르치고 직업 다변성에 대비한 학습법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지식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지구사회봉사단의 역할을 증대시키겠다. 사회에 열린 대학, 사회가 의지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5,700여 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이 그만큼 국제화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대학의 발전 동력을 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양성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몇 가지 개선안을 파악해 한층 국제화된 대학

의 면모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유학생을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야 한다.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 교육여건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유학생의 어학 실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버디’ 제도를 확충하고 대학의 모든 유학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탁 지원과 학과 간 융합연구 발굴, 지원이다.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 역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연구자를 지원하며 보직자 중심 대학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 대학으로 만들겠다. 우수 연구 교수에게 조기승진, 정년연장 혜택을 제공하겠다. 나아가 ‘경희백년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노벨상에 도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학부과정에서 교수나 대학원생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확대하고 교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논문 공모도 강화하겠다.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학과별 맞춤형 과목 개설과 학부생 연구 인턴제 도입도 추진하겠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혁신적인 정책 제안 공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총장과 온-오프라인 대화

방 운영과 구성원의 정책조정회의 참여 등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총장 직속 ‘제안처리기구’를 만들어 제안점이나 문제점을 즉시 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 신뢰와 신의, 화합을 통해 구성원에 의한, 구성원 중심의 대학으로 운영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적 자율권에 대한 인식과 인격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교직원과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 또 사후 처리를 위한 신속한 24시간 연계 대응체계 구축,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이런 제도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나 사회 적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LINC+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대학 자체에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우리 졸업생의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성공하려면 교육적 하부구조가 강해져야 한다. 인간의 삶은 점차 알고리즘의 세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여부가 모든 학문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다. 인공지능의 것발아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을 모든 전공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반 교육을 확충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인문학 혁명을 창출하겠다.

Q12. 총장 예비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의사 출신이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의사 출신으로 총장이 된다면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5년간 대학 거버넌스 추진 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학 행정도 많이 파악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종합기획조정실장과 병원장을 역임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학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경영과 행정, 재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자리였다. 또 경희의료원의 예산 규모는 대학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며 병원 경영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업무의 다변성으로 인해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희의료원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1위의 자리에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의학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회장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장 경험은 총장으로서 대학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성원이 바라는 행정·경영 역량과 소통 리더십 증명할 것”

정완용 예비 후보자

정리: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우리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는 경희는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또 한 단계 성숙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다. 총장 선출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구성원들은 행정, 경영 역량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차기 총장을 바라고 있다. 지난 27년간 교수로서, 그리고 행정 보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경희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문화 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라는 우리학교의 교시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총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하게 됐다.

Q2. 최우선 정책은.

핵심 가치는 첫째가 소통을 위한 협력, 둘째는 평화와 화합, 셋째는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 장려다. 우리학교를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구성원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제도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 교수연구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키겠다. 연구비 및 인센티브 제도와 연구 실적 평가 방안도 개선, 보완하겠다. 정부와 지역 사회 및 외부 연구 기관과 연계 협력 시스템 또한 확대할 것이다. 구성원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소통 채널 또한 구축하겠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재정 확충 방안은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외 전략으로는 국책연구사업비 수주 증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비 수입 증대, 기부금 모금 확대, 국가 고등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다. 대내 전략은 대학원(특수대학원) 연구자 과정 및 특별 과정 활성화, 교내 시설 및 연구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고, 합리적 지출구조 개선, 산업 재산권 활용을 통한 학교 기업과 창업 지원이 있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세 단계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 첫째로 경희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둘째로 우리학교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셋째로 근로 관련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재정과 직무분야 연계 분석을 통해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학력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상법전공)

주요경력

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소장, 경희대 법과대학장, 경희대 입학관리처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희대 감사행정원장

• 대내외 전략으로 구분해

재정 확충 방안 구체화

•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추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합된

연구성과평가와 인사관리

• 구성원 수시 소통 창구 마련,

발전 방향과 목표 공감대 형성

“

입학관리처장 경험 살려

재학생 학업 성취도 향상과

우수 인재 배출이

학교 위상 높이는 선순환을 구축

”

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이다. 또 교육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에 더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우리학교의 유학생 총원은 현재 4,727명으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다. 총 재학생의 6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반면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4.6%로 타 경쟁 대학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유학생을 위한 지원책으로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수, 내국인 재학생, 유학생이 참여하는 ‘유학생 3자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겠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교육 수월성 제고 TF’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우리학교의 교수 연구 역량과 성과는 갈수록 향상되고 있지만 국제 논문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

지역 및 정부 기관 연구소 등과 연구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강화, 연구 실적 평가 방법의 개선 및 보완, 우수 해외 연구 기관 및 연구자와의 교류 확대, 교수 상호 간 연구 교류의 장 확대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교수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의 향상이다.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가 선행돼야만 우수하고 질 높은 학생 교육이 이뤄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단순한 정량 평가 위주인 현행 연구실적 평가 제도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제도와 연구비,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발전 방안 마련과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교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 연구년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공학관 건립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연구 공간 확보에도 힘쓰겠다.

Q8. 학부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할 만한 동기 부여와 대학원 진학 이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역시 대학원생을 지도할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가 필요하다. 교수와 대학원생 공동연구와 협동 관계를 통해 교수의 연구 역량을 전수받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체계화돼야 한다. 대학원생에게 외국 유수대학 및 연구기관과 상호 교류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결

국 대학원 과정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시돼야 학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 경험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체 교수 회의 정기 개최를 통해 소통과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 또 각 단과대 및 학과별 교수들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며, 학생들과도 단과대별 단독방을 운영하겠다. 학교 발전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학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구성원의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 갈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에 인권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고 갑질,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방지 규칙 제정도 추진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차원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사업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 종래 지원 사업의 사후평가와 결과 분석을 장래에 진행될 사업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Q12. 입학관리처장 경험이 있다. 최근 입시제도 및 교육과정 정책이 급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장이 된다면 이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교육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시 확대 등 입시 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입시 홍보 방법 활용과 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입학 사정관 제도의 발전과 입시 관련 전문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학교의 위상 상승과 재학생의 학업 만족도 향상, 우수 인재 배출이 우수한 신입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 신입생 입학 유형과 학업 성취도 및 재학생의 졸업 후 진로 연계 분석을 입시제도 개선과 우수 신입생 유치에 활용하겠다. 교수와 직원, 재학생과 졸업생의 도움과 협력으로 지역 사회 및 고등학교 등에 특강을 실시하겠다. 각종 교육,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공적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학교를 가고 싶은 대학으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재정과 소통 해결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 만들 것”

정진영 예비 후보자

정리: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경희 구성원들은 이번 총장선거를 계기로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및 소통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재정 확충에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를 대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많은 준비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또한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해 우리학교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양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대학행정을 경험했다. 올해 초까지 서울캠퍼스에서 5년 6개월 동안 대외협력부총장,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보직을 수행했고 국제캠퍼스에서 국제대학장, 국제대학원장,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양 캠퍼스의 행정을 모두 경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준비된 총장으로 16대 총장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다.

Q2. 최우선 정책은.

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국제 양쪽 캠퍼스에 대규모 R&D밸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재정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뒤편의 9만여 평 부지에 융복합 R&D밸리를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들을 의료지구와 주거지구에 건설하려고 한다. 서울캠퍼스의 선동호 주변 병설 학교들을 외부로 이전해 2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특구 및 바이오허브 전략과 연계해 바이오헬스 R&D밸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금융·회계·설계·건설업계의 전문기업들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했다.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캠 R&D밸리의 의료지구 에 제3의료원·한방병원·호텔을 건립하고, 서울캠 R&D밸리의 경희여중·고 부지에 의과대학·한방병원·의과학연구원을 신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용과 더불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R&D밸리 건설로 확보할 수 있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들어있는 국가 R&D사업비는 24.1조원이다. 우리학교 대외연구비는 연 1,300억 원 정도이고 이에 따른 간접비 수익은 200억 원 정도다. 경쟁대학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임기 4년 동안 이를 두 배로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과의 R&D 협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정치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대(아바나-삼페인)(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경희대 국제캠퍼스 교무처장, 경희대 국제대학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R&D사업 통해 7천억 원 이상 재정 마련

• 교육 공간 신축 및 SW, AI 강의 증설

• 산학협력관 건립, 연구센터 집중 육성

• 대학평의위원회 활성화, 분권화, 창구 통한 상시 소통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우리는 기능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장단점이 있는 일이다. 공직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학교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예산 제약을 고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적절한 방법과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행정직원의 경우, 업무능력에 따라 정규직 채용 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의 교육여건은 명문대학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첨단 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만들어 차례로 건축해야 한다.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단과대학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서울캠의 의과대학과 국제캠의 응용과학대학부터 신축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심 강의, SW와 AI 관련 강의도 증설할 것이다. 매학기 일정수의 강의를 학생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할 것이다. 서울캠 실내체육관도 건립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첫 번째로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국제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을 확충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단과대학의 교육여건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충하고 양 캠퍼스에 국제학사(I-HOUSE)를 건립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는 우수한 연구진, 실험 공간, 연구비, 대학원생이라는 4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우선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양 캠퍼스에 산학협력관을 건립할 것이다. 서울캠에는 대운동장을 활용해 산학협력관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것이다. 국제캠에는 전자정보대학 옆 공간에 산학협력관과 응용과학대학관을 건립할 것이다. 과학·기술·의료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연구센터를 임기 동안 5개 정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또한 우리학교의 우수 교원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석학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경희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가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는 것, 특히 모교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석사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학부 3, 4학년생이 교수 연구프로젝트와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장학금으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통과 화합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

은 없다. 첫째,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 대표도 자유롭게 토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분권화를 통해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활력을 찾도록 할 것이다. 학장, 원장 선임도 구성원들의 의견과 희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단체가 초청하면 언제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첫째, 옴부즈 제도가 학생 가까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둘째, 성폭력과 인권침해 등 민감한 이슈는 통합민원과 분리돼서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 다뤄질 것이다. 셋째, 경희인권센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앞장서야 하는 분야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LINC+ 사업은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다양해진 사회진출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할 것이다.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재정 확충에 도움 되는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SW중심대학사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많은 학생이 SW기초교육을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고, 여러 학과가 SW 융합전공을 만들고 있다. SW기초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SW 융합전공 신설이 더 많은 학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Q12.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한 경험에 있다. 만일 총장이 된다면 대학의 국내외 홍보 전략과 학술기관, 동문, 지역사회,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외협력력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들과의 대외협력력이 긴요하다. 공약으로 제시하는 R&D밸리의 건설은 서울시와 동대문구, 경기도와 용인시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많은 협의를 진척시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둘째, 발전기금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이다. 기부를 기다리기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셋째, 장학 정신 구현을 위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이슈에서 우리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다.

“위기의 대학, 경험 바탕으로 소통하며 극복할 것”

한균태 예비 후보자

정리: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최근 대학들은 위상 강화를 위한 투자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학생 유치와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의 교육과 연구를 고집하는 대학은 도태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인된 평가에서 우수한 성취를 이뤘지만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식과 소명으로 나서게 됐다. 우리학교에서 학생과 교수로 35년을 보내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결단과 함께 스스로의 능력에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행정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학교 대내·외 조직을 이끌며 문제해결형 리더로 훈련됐다. 또한 시스템에 의한 행정을 추구해왔다. 학장, 원장, 그리고 서울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SPACE21 사업단장,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우리학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위기의 시대, 후보자의 능력과 마음가짐을 믿고 경희의 새로운 도전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Q2. 최우선 정책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째,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창의, 융합, 실천적인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둘째, 연구력 제고를 위해 인적, 제도적, 설비 측면의 자원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다양한 수입원 창출과 지출 효율화를 이룰 것이다. 넷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기후, 환경, 평화 등 그 동안의 지구적 과제들을 문화세계 창조라는 창학 이념에 입각해 수행할 것이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대학 재정의 건전성은 수입원의 다양화와 지출 효율화에서 확보해야 한다. 우선 대형국고지원 사업과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진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 교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연구기금도 조성할 것이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다양한 창의적 목적성 모금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본부 차원에서 동문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기업체나 독지가를 찾을 것이다. 등록금 문제도 구성원 간 대타협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 시스템 간 소화, 조직과 인력 운영의 합리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력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정치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언론학 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대외부총장, 경희대 서울부총장,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 한국언론학회 회장

- 수입원 다양화와 지출효율화로 재정 확충
- 교양 교육 혁신 추진, 융합·실습 확대
- 국제 교류·연구 기회 확대, 설비 개선 위한 플랫폼 구축
- 총장실을 열린 공간으로, 문제 사안 및 제안 경청할 것

“

부총장 경험 바탕으로 누구보다
우리학교의 안팎을 잘 알게 됐다.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만들
‘경이로운 경희’를 상상해본다

”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총장 재임 당시 청소노동자 135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우리학교의 조직문화와 운영방식에는 공감과 민주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 운영진은 물론 교수, 학생,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학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의, 융합, 실천의 세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창의력 향상을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융합교육을 위한 신

규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산학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체험과 실습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교육여건 문제를 수렴해 시설개선 리스트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유학생은 우리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학업 지원, 유학생 모임 활성화, 전담인력 배치와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다. 학습 멘토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과제 및 논문, 발표 원고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Writing(영어, 중국어, 한국어)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또한 유학생이 많은 학과에 전담인력과 예산을 실효성 있게 배치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해외 석학과 국제 교류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교내에서도 융·복합 연구 기회 확대, 연구 설비의 공유, 데이터 공동 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연구 조직을 총괄하는 연구부총장직 신설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연구비 수주에서 정산에 이르는 행정 서비스 전반을 개선할 것이다. 설비 측면에서도 연구와 실험공간을 확충하고 장비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각 캠퍼스에 설치될 ‘Writing 센터’와 ‘Data 센터’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을 제공할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 연계 과정 확대, 장학금과 연구수당 확충, 산학연계 연구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석·박사 연계과정을 대부분의 학과로 확대 실시해 학문 후속세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히고 연구수당을 확대해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계 연구 활성화로 대학원생의 관련 기업체 진출을 도울 것이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민주적 대학 운영에 필수적이다.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 구성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정책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록 총장실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찾아와 고충을 털어놓는 곳으로 바꿀 것이다. 구성원 단체와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을 들을 것이다. 또한 교내 언론을 통해 정책을 수시로 알리고 문제 사안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들을 것이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 갑질 등은 묵과할 수 없으며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문제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감사와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성평등상담실 등 관련 기관을 개편하고 재량권을 강화

할 것이다. 감사행정원의 활동을 강화해 원인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대형 국고사업 및 연구비 수주는 교육역량 강화 및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최근 대형 국고지원 사업들에 잇따라 선정돼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국고지원 사업 수주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고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교육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중간평가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도 직접 점검할 것이다. 향후 BK21 후속 사업 등 대형 국고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해 제안서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다.

Q12. 서울캠퍼스 부총장 재임 당시 이룩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대학 경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부총장 재임 시절 우리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국내·외 최상위권 우수 연구자를 영입하고 연구업적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 역량뿐 아니라 교육과 국제화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QS와 국내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또한 장학금 확대와 학생 복지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고객만족도평가(NCSI)에서 대학분야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을 겸하며 교양교육 혁신을 추진했고, 출범에 기여한 객원교수의 단계적 전임교수 전환도 이뤄냈다. SPACE21 사업단 책임직을 맡아 행복기숙사와 단과대 신축 등 SPACE21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당시 교수의회, 노동조합, 학생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 채널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구성원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느꼈다.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한정돼 있어 적기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우리학교의 안팎을 잘 알게 됐다. 경희의 역사와 정신은 물론 캠퍼스 곳곳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까지 알게 됐다.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만들어낼 ‘경이로운 경희’를 상상해본다. 자랑스러운 경희 70년의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큰 도약을 이끌어내겠다.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불확실성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 만들 것”

황주호 예비 후보자

정리: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창학 이념을 계승해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대학’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직 수행 중 해당 기관을 세계 8위의 연구 성과 기관으로 만든 사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LINC+ 사업을 통한 융합신학문의 발전, 미래과학클러스터 단장직 수행 중 만들어 놓은 9개의 융합전공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학문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문 분야를 고르게 아우르면서도 특성화와 융합 가능 분야를 찾아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대학인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인지, 향후 대학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그 첫 번째는 대학의 위상을 높여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문에 대한 유연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대학만의 융합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성장과 발전 방향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해 이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총장 주도 모금을 통한 연 300억 원 이상으로 기부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기후문제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내외 연계 사업 진행과 마지막으로 취업률 75% 달성이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장 주도 기금모금체제를 갖춰 연 300억 이상으로 기부금을 증액하겠다. 동문 졸업 30주년 상봉 행사 정례화와 비경회인의 경회인화 유도로 경회를 위한 기부 문화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원)의 자율 사업을 격려하고 이를 위해 자체사업 인센티브의 50%를 재투자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것이다. 산학협력단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미래 수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해 연 1,600억 원에서 2,500억 원 규모로 키우려 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디자인, 인문기반 서비스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현재 1개인 학교기업을 5개로, 7개인 자회사를 20개로 늘리고 창업기업을 연 3개씩 증가시켜 재정 확충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현재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환경미화, 조경, 시설 분야 근무자 200여명의 정규직화를 완료했다. 이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정규직이



학력

서울대 원자핵공학과(학사), 미국 조지아 공대(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산학협력단장, 경희대 공과대학장, 경희대 국제부총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 연 300억 이상으로
기부금 증액

• 융합전공 확대, 인공지능
이용한 기초교육

•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 구축,
공간 확보

•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 만들 것

“

재정 건전화로 발전 기틀 마련해
학생의 사회진출 적극 지원하고
졸업 이후의 100년을 자랑스러운
경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모든 행정 서비스를 맡는다는 원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학 졸업 후 100세 이상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미래에 올바른 교육 방향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미래대학은 지식과 지식, 지식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과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문 분야 간 융합전공 9개를 30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초교육을 모든 전공 분야에 적합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캠퍼스 내 수의 창출 클러스터를 유치할 것이다. 나아가 현장실습 수준을 높이고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다. 거점 오픈랩을 통해 실전을 대비하고 교육혁신 콘테스트를 실시

해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발굴, 수용하고 전공심화의 방법론을 강화하겠다. 수강신청제도와 강의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식당의 품격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주차와 통행, 실험실 사용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인다. 취업률 또한 75%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외국인 학생 수요를 분석하고 각 학문 분야별로 자격 기준을 정비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국제교육센터(가칭)를 구축해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역량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내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부여받을 것이다. 모든 학생의 상호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지구적 문제에 도전하는 인문과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성 주제를 연구할 팀을 교내 공모로 선정해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과정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을 역임하며 해당 기관의 연구 성과를 세계 8위 수준으로 향상시켰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창학이념과 연계한 인문 사회 예술분야 지속 연구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및 지자체 연구 사업을 현재 연 1,600억 원에서 2,5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시킬 것이다. 기존 학술 연구 탁월 교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며 학문

분야 별 우수 신입 및 거장 교수를 대폭 영입하고 현재 3명인 세계 1% 연구자를 6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센터 건립,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정비, 연구공간 확충을 통해 신규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우리학교 졸업생의 전일제 박사과정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박사, 석사, 학부의 동문 간 학문 세대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공계 및 인문계 학과들에 각각 10명 내외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연계한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박사 후 과정 기회를 부여하는 우수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학내 의사 결정은 정해진 기구에서 절차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필요조건을 채우게 되지만 구성원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알리기 위한 노력과 듣기 위한 노력이 동등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대 학장에 재임하던 시절 매년 학과장 회의록을 공대 학생회에 공개, 확인 서명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도 공대의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기구와 절차라는 필요조건에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을 충분히 만들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지

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품격 높은 학내 문화가 만들어져야 격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종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공급하고 영상 후기 공모전과 발표회를 갖는 등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성공적인 SW중심대학 사업을 위해 전공별 맞춤형 SW교육을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학SW’, ‘행정학SW’, ‘약학SW’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SW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각 단과대학별 SW스튜디오도 개설할 계획이다. LINC+ 핵심 추진 사업에는 연계형 교육과 지역사회 기업과의 쌍방향 산학협력 활동이 있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한 전공을 지금의 9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양 캠퍼스에 각 1개씩 있는 오픈랩(Open Lab)을 캠퍼스 거점 건물 별로 설치하고자 한다. 이같은 공간의 활용 역시 학생들에 의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독려해 기업과의 쌍방향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위한 지원체제를 만들고 국내 기업을 중심의 현장실습도 해외 우수기업, 공공기업, 연구기관, KOTRA의 83개국 123개 해외무역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 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와 스테이션의 역할이 가능한 산학협력관을 임기 내에 건립할 것이다.

Q12. 국제캠퍼스 부총장 재임 당시 이룩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대학 경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모든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에 전력을 다했다. 교육부 LINC+사업 추진 시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을 수주하는데 기여했고 미래를 대비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이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미래과학클러스터,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를 만들면 모든 것은 쉽게 이뤄지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총장은 학교 경영의 총책임자다. 학교 위상을 높여 세계 대학 100위 내에 진입시킬 것이며 재정 건전화 기해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할 것이다. 학생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졸업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100년을 경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겠다.

‘감수성’과 반지성주의

교수칼럼

엄혜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감수성(sensitivity)’이란 말이 유행이다. 다양한 시민 의제를 이해하고, 삶에서 체화하는 역량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유엔, 유네스코, 옥스팜 등 국제기구에서 대중적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보급됐다.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평화 감수성, 생태 감수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의식이 지식과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활이나 일상 세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대학 교양교육에 목적에도 부합한다.

감수성은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 어감과 달리 종합적 역량을 뜻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인권 감수성의 사례를 들어보자. 폭력을 훈육이 아니라 인권 침해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사유, 피해 아동의 고통을 감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 및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정착화할 수 있는 역량, 실천적 과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권 감수성의 고양으로 우리 사회는 ‘사랑의

매’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감수성의 의미가 여전히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얼마 전 대법원은 한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제도 언어로 상식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세간의 오해도 드러났다. 성인지 감수성이 여성 피해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폭력과 같이 젠더 관계의 동학(動學)이 중요하게 발휘되는 사건의 경우, 이를 법리 해석에 개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편들어 사실, 진술, 증인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들에 대한 실체화와 맥락화를 위해 필요한 관점과 그 실행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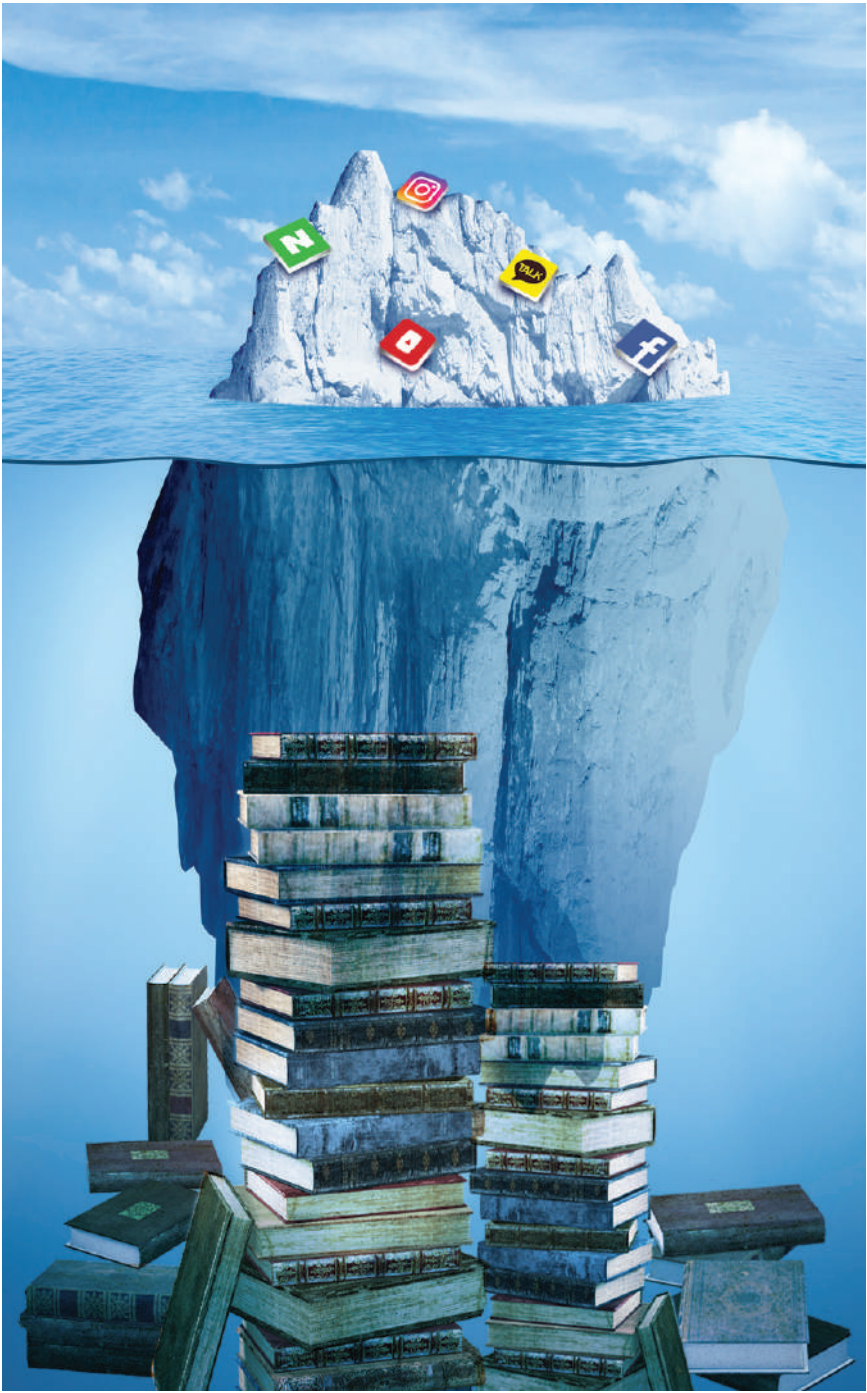
감수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반지성주의 문화가 한 몫을 한다. 감수성은 최소한의 합의에 기초해 있다. 인권, 젠더, 평화, 생태 등의 의제가 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등한 시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분석의 범주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 사적 삶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시민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이 최소한의

합의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기초적, 당위적, 규범적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사유,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 감수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 성인지 감수성은 직장 동료에게 섹시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생태 감수성은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것 등의 매뉴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식 환경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지식, 정보, 담론을 쉽게 접하게 되었지만 인스턴트하게 유통되고 휘발되는 경향 역시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 깊고 오랜 지적 성찰의 위상과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설명충’, ‘진지충’ 등 진지한 사유와 성찰적 태도를 조롱하는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윤리적 저항감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적절한 예일 것이다.

호프스태터는 이와 같은 반지성주의적 태도와 실천이 엘리트주의에 도전해온 지식의 민주화 및 평등에 대한 열광 이면에 자리 잡아 왔다고 주장한다. 소수가 독점했던 지적 사유의 권리를 갖기 위해 행동해왔다면, 이제는 지적 사유를 행동해야 한다. 시민 의제에 대한 감수성 개념은 이렇게 지적 사유와 행동의 이분법적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최선의 논의인 것이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④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과 대학교육의 낙후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은 외형적으로 일반 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업은 근대적 합리성에 기초해 기능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지만, 대학은 지원자의 연구와 교육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보다 오히려 다른 가치가 중시된다.

학과라는 중세적 길드 조직의 구성원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강조되는 것이다.

대학교수직은 매우 세분화된 전문직인 까닭에 채용 시 대개 특정 분야를 전공한 한 명의 인원을 뽑게 된다. 이에 10명 내외인 지원자들 대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학과의 기존 교수들과 학계에서 오랜 동안 직간접적으로 만나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출신학교, 지도교수, 전공분야 뿐 아니라, 외모, 말투, 행동 양식까지 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AI가 아닌 이상 그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배제하고 순수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교수 채용과정인 이렇게 전근대적인 것은 대학의 학과가 현대사회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수시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동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교수들은 한 학과에서 평생의 직장 동료인 학과 교수들과 매우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성격은 학계의 전반적 인간관계뿐 아니라 학문적 풍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회는 학문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동업자 집단 내 사교의 장에 가깝게 되어 있다. 학자들 사이의 진지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학문적 교류는 없고, 정치적인 교류가 주를 이룬다. 교수들은 후배나 제자를 다른 교수들에게 소개하고, 아직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은 공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대학의 교수사회는 이처럼 동업자 조직인 중세의 길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교수선발에서 작동하는 길드 시스템은 학자 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길드 시스템에서 도제와 마스터의 관계는 단지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 관계이기도 한데, 오늘날 대학의 지도교수는 지도과정을 통해서 지도학생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 지배관계는 지도교수를 매개로 폐쇄적인 동업자 조직인 전체 학계로 연결된다.

이런 교수사회의 특성 때문에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도 대학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세의 길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었

으며,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왔다. 그 과정은 또한 경쟁의 과정이어서 한국 사회는 전 영역에서 극심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길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 사회만이 예외적인 별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길드는 구성원들의 배타적 이익 수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업자 조직이다. 그리고 그 이익 수호의 기본적인 수단은 상호 경쟁 지양이다. 경쟁이 없다면 동업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는 대기업,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중소기업, 안정된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직장인들,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 위해 국가고시 공부하듯 하는 구직자들, 망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 이들 모두가 무한경쟁의 아수라장 속에 있다.

그러나 교수사회에는 경쟁이 없다. 폐쇄적인 교수사회에 들어가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면 경쟁에서 자유롭게 된다.

길드적 구조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거부한다. 한국의 대학사회가 아무런 기본적 변화 없이 외형적 성장만 중시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결과로 대학의

외형은 발전하고,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 사회의 구조 속에 있었다면 수십 년 전에 사라져야 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채 그간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온갖 제도적 특혜와 비제도적 특권을 누렸다. 한국 대학의 교수들의 사회적 위치는 세계의 어떤 국가의 교수들이 그 사회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수들, 특히 인문학 교수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성취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한국의 인문학이 한 것이라고는 해외의 각종 사상 조류를 소개하거나 그것을 응용하여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전통학문, 이를테면 동양철학, 고전문학, 역사학 등에서도 고증학적 연구 외에는 대부분이 서양 이론을 통한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의 인문학 대학교수들이 이룬 가장 큰 실적은 다수의 대졸 실업자를 양성한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감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인터뷰

자연, 사람, 지형 연결해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하다

판교 알파돔시티 중앙광장 랜드마크 조성 공모전 대상 수상한 이주현·김준택·김소희 씨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판교역 일대의 공간 디자인 개선 방안을 경쟁하는 ‘판교 알파돔 시티 중앙광장 랜드마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공모전)’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 작품명 ‘판교 시넵스’를 디자인한 김준택(환경조경디자인학 2016), 이주현(환경조경디자인학 2016), 김소희(환경조경디자인학 2015)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대상 수상작을 적극 활용해 2021년까지 중앙광장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주현 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상자 명단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확인 전화까지 했었다”고 말하며 대상 수상을 확인하던 순간의 떨림을 전했다.

졸업반인 세 사람이 한 팀이 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업시간에 우연히 작업을 같이 한 것이 시작이었다. 팀워크가 좋다고 느낀 세 사람은 졸업전시회 준비까지 함께하기로 했고 졸업전시회 작품 출품을 목적으로 공모전 참여를 결심했다. 작업 시작 전 다녀온 현장답사는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됐다. 이주현 씨는 “공모전 대상지로 나온 중앙광장을 둘러보며 유동인구가 많지만 행한 느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씨의 문제의식으로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과정은 순탄했다. 여느 팀과는 다르게 팀원 간 마찰이 전혀 없었다. 김준택 씨는 “역할 분담이 확실한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팀장인 김준택 씨는 렌더링, 이주현 씨는 3D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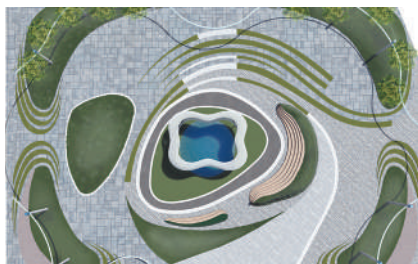


대상을 수상한 이주현(왼쪽), 김준택(가운데), 김소희(오른쪽) 씨는 “각자 잘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직접 설계한 공간이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고 뿌듯해요

”



수상작 ‘판교 시넵스’의 마스터 플랜이다.

래픽과 모델링, 김소희 씨는 2D 그래픽에 각각 특화된 역량을 갖고 있다. 김소희 씨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아이디어가 확장됐다”며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의견 차이 없이 진행된 작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시켰고 이는 판교 시넵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판교 시넵스는 신경세포 사이의 결합 관계인 시넵스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자연, 사람, 지형 등 공간 구성 요소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배기구와 비상계단 등 투박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예술작품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전형적인 반듯한 디자

인에서 탈피해 유기적인 곡선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미세먼지를 여과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클린포그(clean fog) 순환 시스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케치한 자연풍경을 화면에 구현하는 ‘인공지능 아트 디스플레이’, 빗물을 유입해 수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레인가든(rain garden)’ 등 다양한 기술 전략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판교 시넵스라는 작품명을 처음 떠올렸다는 김준택 씨는 “조경이 단순히 나무 심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의 바람대로 판교 시넵스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같은 신기

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차별화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판교 시넵스는 세 사람에게 공모전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겼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준비한 작품인 만큼 충실성, 예술성, 상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에 성공했다. 세 사람은 “각자 잘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대상 수상 비결을 공개했다. 또한 좋은 작품을 보면 좋은 작품이 떠오른다는 김소희 씨는 “시각적 요소와 체험적 요소가 반영된 다른 팀의 작품을 보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는 “직접 설계한 공간이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세 사람은 졸업전시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판교 시넵스 외 1점으로 졸업전시회에 참가했다. 김소희 씨는 “대학생 신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졸업 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시에 공간 디자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후배들을 위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주현 씨는 “심사위원이 공개된 공모전이 라면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으로 탐색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씨는 “기업체에서 낸 공모전이라면 심사위원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Korea University Center for Career Development

2019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Career Design Festival
오늘 그리는 내일의 청춘

2019년 11월 6일 (수) 12:00 ~ 17: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학점, 스펙, 인턴십, 대외활동, 교내활동..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2019 KHU CDF에서 유익한 팁을 얻어보세요!

◆ 멘토존 방문 선배 ◆

분야	졸업 학과	재직 기업
대기업 생산관리&소재개발	기계공학과	기아자동차
대기업 전자&IT	전자전자공학과	포스코
대기업 R&D	컴퓨터공학과	현대오토
대기업 광고 (미디어물레싱)	언론정보학과	LG그룹, HS애드
	문화관광콘텐츠학과	CJ그룹-메조미디어
대기업 e-커머스&영업	중국어학과	식물분야기업(블라인드)
대기업 마케팅	시각디자인과	삼성전자
대기업 금융권	중국어학과	농협은행
외국계기업 마케팅	국제경영학부	포르쉐코리아
외국계기업 영업	영미어학부	한국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HPE)
공기업 전자직군	전자전자공학과	지역난방공사
국가고시 외교관(외무사무관)	국제학과	국립외교원

◆ 푸짐한 경품이벤트 ◆

1등 에어팟 | 2개
2등 에어프라이어 | 2개
3등 카피드 미니 | 3개
4등 라면라면즈 | 4개

제1회 융합학술연구 공개 세미나

〈왕양명의 생명이해 : 천지만물일체론〉
‘지구시민의식’을 향한 인식과 사유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인재 명예교수 (서강대, 양명학)

心者身之主也, 而心之虛靈明覺, 即所謂本然之良知也.
夫良知即是道, 良知之在人心, 不但聖賢, 雖常人亦無不如此.
若無有物欲牽蔽, 但循著良知發用流行將去, 即無不是道.
“王陽明《傳習錄》137-165條目”

마음은 몸의 주재이며 마음의 허령명각(虛靈明覺, 신령스러운 밝음)이 이른바 본연의 양지이다.
무릇 양지가 바로 도이다. 양지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비단 성현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물욕에 이끌려 가려지지 않고, 다만 양지의 발용 유행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 도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한의과대학 262호 강의실
주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한의과대학·미래문명원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융합학술연구세미나
문의: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961-0642 / 9311)